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용 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현대사회의 여성 일상과
정체성에 관한 표현 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2010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양화과
소윤주

현대사회의 여성 일상과
정체성에 관한 표현 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김 용 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양화과

소윤주

인 준 서

소윤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논문 개요

본 논문은 2009년 작업한 작품 중 ‘외출’이라는 주제로 2010년 3월 개인전을 통해 발표한 작품들에 대한 내용과 조형적 측면을 분석한 것이다.

과거의 여성은 가사와 육아를 하며 가정생활에 안주했지만 현대사회에 여성들은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나 사회적 인식은 아직 여성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과거의 여성상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가정에서는 아내, 주부, 어머니 그리고 딸이자 며느리의 역할을 하며, 집안일과 육아를 책임져야 하고, 사회에서는 동료들과 타협, 경쟁하며 일정한 성과물을 만들어 내야한다.

본인은 이러한 현대사회 여성의 모습을 가족들과 산책하거나 유모차를 끌고 외출하는 평범한 일상의 이미지를 통해 표현했다. 작품 속 인물들은 주변에서 흔히 마주치며,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모습들이다. 또한 그들의 동작과 형상은 너무 심각하지 않고 과장되지 않게 명암법에 의한 면 분할과 무채색으로 일상 속 본인의 내적,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여성에게 집은 휴식, 그 이상의 안정감의 근원이자 행복감을 주는 곳, 우리 가족의 보호막이다. 또한 자신의 주거 공간이지만 그 공간마저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 아닌, 가족을 위하거나 가족과 함께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자신을 보여 주기 위해 꾸미고 장식하는 공간이다. 행복과 안식처인 동시에 갈등의 장소인 집으로부터의 ‘외출’은 매우 중요한 행위이다.

현대사회의 여성으로서 개인의 욕망과 사회적 역할을 확인하고, 인간으로서의 주체성 나아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재발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작품 활동을 통해 개인의 내면세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자기치유의 의미를 갖고 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현대사회의 여성과 일상	3
1) 현대사회의 특징과 현대인	3
2) 현대사회의 가족과 여성	5
3) 사회 반영으로서 일상	10
2. 작품의 조형적 전개	14
1) 색과 형	14
(1) 무채색	14
① 무채색의 어원	15
② 무채색의 감성(상징성)	16
(2) 인물의 형	18
2) 면 분할	19
3) 일상 공간	20
3. 작품 분석	22
III. 결론	41

참고도판

참고문헌

ABSTRACT

작품 목록

- [그림 1] 외출 73×61cm 광목에 아크릴 2009
- [그림 2] 외출 162×130cm 캔버스에 아크릴 2009
- [그림 3] 외출 130×162cm 장지에 아크릴, 금분, 먹 2009
- [그림 4] 외출 194×259cm 캔버스에 한지, 아크릴 2009
- [그림 5] 외출 91×117cm 캔버스에 유화 2009
- [그림 6] 외출 117×91cm 캔버스에 한지, 아크릴 2009
- [그림 7] 외출 91×117cm 캔버스에 한지, 아크릴 2009
- [그림 8] 외출 117×91cm 캔버스에 한지, 아크릴 2009
- [그림 9] 외출 117×91cm 캔버스에 한지, 아크릴 2009
- [그림 10] 외출 218×91cm 캔버스에 한지, 아크릴 2009

참고 도판

[도판 1] Edvard Munch <puberty>1894 Oil on Canvas,
151.5x110cm, Oslo National Gallery.

[도판 2] Marcel Duchamp <Fountain> 1917/1964,
ready-made, 36x48x61cm, Centre Pompidou.

[도판 3] Richard Hamilton<just what is that makes today's
homes so different, so appealing?> 1956, collage, 24x25cm.

[도판 4] Edward Hopper <Nighthawks> 1942. Oil on Canvas
84.1x152.4cm,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I. 서론

현대사회는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 대중화, 정보화 속에 편리함과 풍요로움 등 외형적 윤택함을 가져왔지만 개인의 주체성이 결여되고 인간관계의 연대감이 상실되었다. 이로 인하여 인간은 필연적인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으며 권태감과 공허감으로 인해 비인간화, 탈 인간화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현대사회에 가족은 대가족에서 이동이 편리한 핵가족으로 변했고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 가정생활에서의 남성 가사 분담률이 높아졌지만 보조적인 역할일 뿐 주된 책임은 여전히 여성에게 있다.

2009년 본인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결혼해서 아이(가정생활)와 학교생활(사회생활)을 병행하고 있었는데 본인의 이러한 상황은 직장생활을 하며 아이를 돌보게 되는 대부분의 요즘 현대사회의 가족, 나아가 여성의 모습이다.

사회생활과 가정생활 어느 것 하나 포기 할 수 없고, 완벽하게 이루고 싶은 개인의 욕망, 사회적 위치,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갈등과 혼란, 내면적 충돌을 가족의 일상적 모습을 통하여 표현했다. 작품 속 가족 이미지는 평범하고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 버리는 모습들을 명암법에 의해 4단계 또는 5단계로 나눈 단순한 면 분할과 검정색 회색의 무채색으로 표현했다.

본 논문은 2009년 작업한 작품 중 ‘외출’이라는 주제로 2010년 3월 개인전을 통해 발표한 작품들에 대한 내용과 조형적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며 여기서 ‘외출’은 여성에게 현실인 집, 가정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의미한다. 또한 작품에 등장하는 유모차는 현실의 공간과 이상의 공간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본 논문 1장은 작품의 이론적 형성 배경과 주제로 다루고 있는 현대사회의 특징과 인간, 현대사회의 가족과 여성, 사회 반영으로서의 일상 예술에 대해서 탐구하며, 2장에서는 작품 '외출' 이미지에 대한 조형적 측면인 무채색과 인물의 형태, 명암법에 의한 면 분할과 일상 공간에 대해 연구해 본다.

본 논문을 통해 현대사회의 인간으로서의 주체성 나아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과정이며,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한 인간, 개인이 이루고자하는 욕망을 사회적 역할과 위치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의 작업에 대한 이론적 방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현대사회 속 여성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현대사회의 여성과 일상

1) 현대사회의 특징과 현대인

20세기 이후의 현대사회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더불어 양대 세계대전으로 정신적인 혼돈을 겪으면서 물질문명에 대한 회의와 인간성 회복에 대한 문제가 나타났다.

20세기 후반에 와서는 정보화의 새로운 물결 속에서 세계를 하나로 잇는 정보매체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는 물질의 풍요를 넘어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편리함과 풍요로움의 혜택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은 풍요로운 정보사회의 주체로서보다는 일방적인 수용자로서 살아가고 있으며, 인간과의 접촉보다는 매체와의 접촉의 기회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비인간화된 삶을 살고 있다.

산업화, 대중화, 정보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특징이며, 산업화의 발전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가져다주었지만 지나친 물질추구로 인해 인간은 자신이 탄생시키고 개발해낸 기술이나 사회조직에 종속되어 주체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로 인하여 인간은 비판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인간 존재의 상실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대중화 현상으로 인해 인간은 대중이 모든 결정을 하게 되었고 방송매체의 확산으로 인해 같은 정보를 동시에 공유하게 되면서 개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즉, 현대사회는 인간의 존재를 더욱더 고립화, 획일화, 파편화시켰고 그

로 인해 인간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혼란한 상태를 지니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소외와 정체성의 상실인 것이다.

현대사회는 대중을 양산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소비대중을 창출하고, 정치적으로는 피지배대중,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무산대중을 산출한다. 그리하여 현대인은 정치적인 대중, 경제적인 대중, 그리고 문화적인 대중으로 위치하고 있다. 대중은 엘리트가 조정한다. 커뮤니케이션의 원천을 장악하고 있는 엘리트는 기회주의적인 전략을 동원한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차단하기도 하고 왜곡시키기도 한다. 대중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의미가 없다. 다수의 힘이 지배할 뿐이다.¹⁾

이 같은 대중화 현상으로 인간은 대중과 동일시하고 대중 집단의 일원으로 인식하며 획일화되고 변화하는 사회에 자신을 맞춰 안정감을 찾으려하고 있다. 그 결과 인간관계의 연대감이 상실되고 개인의 특성과 주체성이 상실 되었으며 전체의 개성은 평준화 되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인간성 상실로 인한 인간소외현상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인간성 소외현상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계에 의한 인간성 소외로 인간이 기계리듬에 맞춰 인간성을 순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둘째, 노동가치의 타율화로, 현대인은 노동을 통해 인간이 본질적 활동자격으로 즐거움을 얻기 보다는 노동의 결과가 자본가의 사유물화 되는 데서 노동력의 상품화에 의한 소외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조직사회에서 인간성 상실로 조직, 집단 혹은 구조 안에서 인간의

1) 고영복 1991 「현대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현대사회론”」 p.15.

위치와 역할, 사고와 행동을 고정화 혹은 획일화 시켜 인간을 거대하고 복잡한 조직 메커니즘 속에 부품화 시키는 것이다.²⁾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소외 현상으로 비인간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인간들의 존엄성이 파괴되고, 자신을 무기력한 존재로 간주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간은 내면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인간 상호간의 관계는 협동이나 애정, 인격적 상호 유대관계가 아니라 일시적, 형식적, 물질적, 이익추구적인 관계로 전락되었다. 또한 인격의 상실로 인한 전쟁, 성폭력, 유괴, 무분별한 범죄는 현대사회에서 읽을 수 있는 비인간화 현상들이다. 현대사회는 윤리 도덕의 상실과 타락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물질과 금전에 대한 집착으로 인간을 상품화하고 자신의 인간성까지 변질시키며 이기주의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2) 현대사회의 가족과 여성

현대사회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물질적, 형식적, 구조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족은 산업화의 따른 도시화와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으로 대가족에서 기동성 면에서 유리한 핵가족의 형태로 바뀌었으며, 또한 남녀평등사상, 개인적 가치의 존중, 평등적 부부관계를 향한 의식의 변화에 따라 가족 관계는 부모 자녀간의 관계로부터 부부가 중심이 되는 관계로 바뀌었다. 이와 같이 가족의 형태나 기능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변천해 왔다.

사회 시장경제에 의한 물질만능주의 확산으로 계층 간의 생활수준의 간격과 갈등은 심화됐고, 사회의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의 확산과 가족 간의

2) 장진호 1986 「현대사회에 있어서 인간교육의 의미와 과제」 서울:배영사, p.84.

의사소통의 단절로 가족은 비인간화되고 인간적 연대감이 약화되었다.

즉, 현대 사회 속에서 가족의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본래의 역할은 약화되고 인간의 기본적인 생물학적 욕구의 충족과 정신적, 도덕적 가치에 대한 본질적인 충족은 변함없이 가족의 과제로 남았다.

보봐르의 [제 2의 성] 의 체험 첫 장에 기술되어 있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만들어진다.”³⁾는 보봐르의 여성관을 보여주는 것인데 가부장제도의 언어구조에서 ‘남자’ 와 ‘여자’는 대등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남자라는 용어는 규범이나 인간성을 대표하는 긍정적인 것인 반면 여자는 종속적인 용어로 규범 된다는 것이다. 여자는 자체로의 긍정적 의미를 소유할 수 없고 남자와의 관계 속에 ‘남자가 아닌 것’으로 규정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여자로 태어난 인간은 가부장적 문화와 사회에 의해 여성적으로 행동하도록 배우고 길들여진다는 것이다. 또한 보봐르는 남성들의 요구로 여성의 자기기만 혹은 여성의 신비는 여성들을 가정과 육아, 가사노동에 매어두려는 것으로 보았으며 여성들이 ‘기만적 신비화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제도가 만들어 놓은 가부장제도의 틀로부터 벗어나야만 자신의 진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

3) Simone de Beauvoir, 1974, *The Second Sex*, H.M. parshely, Trans and ed. (New: Vintage Books) 1949년 간행되었다. 제1장 <여자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의 첫머리에는 “사람은 여자로 태어 나지 않는다. 여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여자의 특색이나 능력을 모두 생리적 조건과 현상에서 설명하여,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라고 생각해왔던 남성본위의 여성론을 반박하고, 실존철학과 사회사적(社會史的) 분석의 방법을 종합하여, 아내나 어머니로서의 생활이 얼마나 조작되어 온 것인가를 역설하고, 여성의 자유로운 미래의 모습을 시사하고 있다

4) 기만적 신비화 Mystification 는 여성이 한 인간이라는 본질을 창조하지 못하고 인종, 봉사, 희생이라는 ‘여성다움’의 외적 조건이 요구하고 있는 실존을 말한다. 다시 말해 오랜 가부장제와 사회제도 등이 여성에게 부여해 온 여성성으로부터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고 있는 것을 말한다.

였다.

과거의 여성은 전통적인 성역할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남성이 정한 여성으로서만 존재 해 왔고 나약하고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여겨졌다. 특히 여성 스스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각하지 못했고, 남성의 전유물로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의 여성은 수동적이고 남성에 의존하며 열등한 존재였으며,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참여권의 기회를 요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성 인권 향상 운동이 시작되면서 사회 문화 정치적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여성의 변화는 여성 스스로의 자각에 의한 것이었다. 여성의 교육, 권리와 인권향상을 요구하게 되었고 더 이상 여성은 나약하고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또한 여성 인권 향상으로 인해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가치관을 어느 정도 느슨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남녀 평등사상과 여권 급신장, 그리고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진출로 인하여 전통적 부부 역할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현대 여성들은 가정생활에 안주하기 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활동영역을 넓혀 나가기 위해 사회에 진출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으로 여성은 스스로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자신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삶의 방식의 변화,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여성이 직업을 가지면 남성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 있게 살아갈 것 같지만 사회에서의 여성은 이중으로 속박된다. 가정에서도 역시 사회활동을 담보로 여성에게 슈퍼우먼이 될 것을 요구한다.

작은 사회라 불리는 가족 안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집약되어 나타나고, 이러한 문제들은 가족 관계에 갈등과 불안을 조장하며 가족을 위협하고 있다.

다음은 2010년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부부의 자화상’에 대한 두개의 기사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부부 가사분담, '말로만 공평하게...'

YTN 2010-05-20 00:25 이만수 기자 e-mansoo@ytn.co.kr

[앵커멘트]

5월 21일은 세 번째 맞는 부부의 날인데요. 우리 부부들은 남편과 부인이 나눠서 가사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부들이 대부분을 떠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설거지와 청소, 식사 준비까지, 집안 살림은 아직까지 주부들 차지입니다. 통계청이 조사해보니 남편과 부인 대부분 가사는 주부가 주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부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남편과 아내가 각각 12%와 3.7% 였습니다. 그런데 실태는 열 명 가운데 세 명이나 부인이 전부 떠맡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도와준다는 답은 절반을 겨우 넘었습니다.

[인터뷰 : 김종숙,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

"제가 물론 가사 일을 좋아하고요. 늘 해와서요. 남편은 그 전에는 도와줬는데 지금은 잘 안 도와줘요. 젊을 때는 도와줬는데..." 물론 나눠서 해야 한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실천하는 것은 절반에 그쳤습니다.

[인터뷰 : 윤상근, 서울 상계동]

"집안일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실제 그렇지는 못해요. 저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집사람은 집을 지키니까 집사람이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가족관계 만족도는 여자가 남자보다 낮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남편 가운데 70.6%가 배우자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떨어져 60대 이상은 60.4%에 머물렀습니다. 부인의 경우에도 나이가 많아질수록 만족도가 하락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와 그렇지 않은 가정의 소득차도 컸습니다. 월평균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맞벌이 부인은 하루 평균 3시간 반 가량을 집안일에 쏟았습니다. 남편은 겨우 30분이었습니다.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은 남편이나 부인 누구 하나의 몫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야한다는 것. 부부의 날을 맞아 한 번쯤은 되새겨 볼 일입니다.⁵⁾

가사 공동분담, 부부 10쌍 중 1쌍

한국경제TV 2010-05-19 14:41 이지은 기자 luvhyemi@wowtv.co.kr

우리나라 부부 중 집안일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부부는 10쌍 중 1쌍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부부의 날을 맞아 발표한 "'우리나라 부부의 자화상'" 통계를 보면 가사 분담에 대해 남편의 8.7%, 부인의 9%만이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⁶⁾

5) YTN 2010-05-20 00:25 이만수 기자 e-mansoo@ytn.co.kr

6) 한국경제TV 2010-05-19 14:41 이지은 기자 luvhyemi@wowtv.co.kr

과거에는 전통적인 가부장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의 행복은 능력 있는 남편이나 단란한 가정 등과 같이 가정의 범주 안으로 제한되었으며, 가정에서 주부의 역할은 결혼한 여성이면 당연히 해야 하는 임무로 인식되어, 인정받지 못하고 가치도 존중받지 못했다. 또한 가사노동과 육아와 같은 가정생활은 여성에게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지며 남성은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

현대에 와서는 남편과 가족 구성원들, 주변인 모두에게 많은 의식변화가 있긴 하지만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다. 여성에게도 남성과 평등한 교육의 기회가 생김으로써,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착한 아내, 착한 며느리, 착한 어머니라는 것은 그 개별성에 있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회로 나가는 길을 선택하며 여성 스스로 가정생활 보다는 사회생활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겨난 것이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에게도 가사노동과 육아와 같은 가정생활의 임무는 똑같이 주어진다. 반드시 해야 하는 임무를 사회생활로 인해 소홀하게 되거나 못하게 됐을 때 오는 미안함과 죄책감은 현대 사회 속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중 무엇하나도 생각한 것만큼 이루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3) 사회 반영으로서의 일상

인간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시대의 문화와 사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예술가 또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시대의 영향을 받게 된다. 예술작품에는 그 사회의 의식이 담겨

져 있게 된다. 아놀드 하우저가 말하길 “예술은 시대적 제약성을 그 실체로 하기 때문에 예술작품은 표현의 동기, 대상, 소재로 인해서 하나의 역사적 성격을 가진다고” 했다. 또한 “인간에게 어울리는 현존의 가치를 중요한 문제로 다루는 것이 예술의 목적이자 내용이다.”⁷⁾라고 하며 예술은 일상과 인간생활의 경험을 통해 작품에 반영할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예술은 인간의 일상적 체험을 내면세계에 표현하는 것이며 예술작품은 일상적 경험 속 특정한 시간, 공간이라는 제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경험으로서의 예술”에서 존듀이(John Dewey)는 “예술품은 물리적이고 잠재적인 것에 반하며 예술창작 활동은 경험적인 것이다 ⁸⁾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예술은 인간의 일상 경험을 의미한다. 예술과 일상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일상을 통한 경험으로서 예술이 만들어지기에 예술의 바탕은 일상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술가는 사회나 역사로부터 벗어난 고립된 존재로서가 아니라, 현실과의 부단한 접촉을 통해서 표현하게 되는 것이며 예술작품은 표현방법 혹은 내용적으로 존재하며, 분명 한 시대의 사상과 정신을 반영한다.

결국 예술가는 그가 존재하고 있는 사회의 지배적인 사상과 철학, 혹은 정치 사회적 사건의 흐름에 영향을 받으며 타자와 연결시키는 다리로서의 역할을 한다. 사회는 개인들의 결합으로 구성되어있고, 이 개인 역시 사회 안에 존재하므로 사회와 개인은 사상적, 역사적으로 서로 분리될 수 없고 개인적 존재와 사회적 존재는 동시에 발전, 공존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7) 하우저 1983 「예술사의 철학」 황지우 (역), 서울:돌베개, p.86.

8) 존듀이 (John Dewey) 1980 「Art as experience」 perigee books: New york, p162.

이처럼 예술은 인간의 삶의 일부로 인간의 상실된 가치를 일깨우고, 시대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시대에 필요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삶을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며 현실에 영향을 준다. 예술과 인간의 삶은 동시에 존재하였고, 인간은 예술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 인간의 삶은 불완전한 속에서 살고 있으며, 예술은 삶을 보완하고 극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인생은 존재의 불완전함을 극복하고 완전한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의 과정이기 때문에 인생과 예술 모두 존재의 극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인생은 예술’ 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 어윈 에드만도 ‘산다는 것은 창조적 행위와 미적 감상의 끊임없는 연속이며 우리들이 하는 일은 모든 것이 하나의 예술이며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 전부다 감상과 기쁨이다.’ 라고 강조했다.⁹⁾ 삶은 물질적 만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중심의 세계관을 지향하고 있고 그 세계관의 중심에는 아름다움이 요구된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 가운데 하나가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고 그 욕망을 가장 아름다운 형식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 예술이므로 예술은 가장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간다운 삶이란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이루어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충족을 만끽할 수 있는 삶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기본 특성인 이성과 감성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그 둘을 동시에 적절하게 활용하여 최고의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는 것이 예술이라고 보면 인생은 예술이라고 말 할 수 있다.¹⁰⁾

예술은 본인에게 내부 세계로부터 가지는 근본적 불안과 외부 세계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행방시키는 역할을 하며 시대적 환경에 영향을 받고 시대가 필요한 가치를 환기시킴으로써 예술을 통해 삶의 고통으로부터

9) 어윈 에드만 1998 「예술과 인간」 박용숙 (역), 문예출판사.

10) 손정숙 「예술과 웰빙」 만남출판사, p.173.

오는 불안과 불만을 충족시킨다.

일상적인 가족 나들이 모습 속에 가정과 사회적 인식에서 갖는 여성의 역할과 인간으로서 정체성 사이에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불만을 작품에 담으면서 이를 치유 극복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인은 한 시대와 사회 구성원으로 주변이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 본인이 서술하는 것은 항상 짧은 역사적 순간의 인간, 주위 환경 및 상황이 된다. 이는 사회 반영으로서 예술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며 이를 통해 사회와 소통한다.

2. 작품의 조형적 전개

1) 색과 형

작품에 있어서 표면적인 느낌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로 형과 색채를 들 수 있다. 이들은 회화의 본질적인 요소임과 동시에 형과 색은 우리들의 시각예술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며 이런 조형 언어와 결합하여 대상의 객관적 실현성을 표현한다. 형태는 채색이 됨으로써 드러나며, 색채는 형태로 테두리 지워짐으로써 명분을 갖는 것이다. 형태는 대상과 주제와의 거리를 지각하는데 효과적이고, 색채는 오직 느껴지며 본질적인 경험의 표현적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형태는 색채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색채는 형태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며 상호작용한다. 색채는 조형 요소 가운데 가장 감각적으로 인간의 정서적 체험을 표현해 줄 수 있다. 색채는 원시시대부터의 관념이며, 원 발색인 무광색의 소산이며 그것의 상대편은 색상 없는 암흑인 것이다. 우주 최초의 빛은 색채를 통하여 우주의 생동하는 영혼의 존재를 우리에게 제시한다. 색채는 빛이고 생명이다. 즉 정신적인 세계이고, 영혼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¹¹⁾

(1) 무채색

본인의 작품에선 무채색을 주로 사용한다. 무채색은 흰색, 회색, 검은색으로, 유채색의 반대이며 채도가 없고 명도만으로 이루어졌다. 무채색의 이미지 중 긍정적 이미지는 모던, 심플, 도회적인 이미지이며, 부정적으로는 불길, 불안 우울과 고독, 엄숙한 이미지이다. 본인의 무채색을 사용하

11) 김효정 2005 「색채를 통한 일상적 심상적 표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p.3.

여 현대사회의 평범한 일상의 모습 속에서 갖게 되는 무력감과 고독, 우울하며 불안한 이미지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색채는 본인의 작업에 있어서 작품에 생명력을 주는 요인이며 정신적 표현 대상을 보여 주는 동시에 중요하고 직접적인 매개체 역할을 한다. 조형적 요소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며 동시에 혼한 일상 풍경에 대한 시각적 혹은 상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단순한 재현을 넘어서서 내면적 감성을 표현하려고 하였다.

① 무채색의 어원

흰색의 어원은 “희다”라는 색채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주 안에서 지구의 운행 궤도를 이끈 구심력이 되고 있는 태양을 나타내는 순우리말 “|”에서 파생되어 “희다”라는 말로 정착되었다. 한자 白(흰 백) 자는 태양을 의미하는 日(날 일) 자 위에 빛을 가리키는 한 획을 내리그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흰색은 “밝음과 끊이지 않음”을 의미하고 나아가 “영원불멸”을 상징한다. 영어 “white”는 “빛이 있는” “빛나는”을 뜻하는 고대영어 “hwit”에 어원을 두고 있다. 해가 세상을 밝게 비춰 주는 대낮의 색이 곧 흰색인 것이다.

회색의 어원은 시멘트라는 “접착체”라는 뜻을 가진 회랍어 “cementos”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어있다. 인간이 시멘트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약 7천 년 전 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시멘트를 사용한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피라미드를 꼽을 수 있다. 오늘날 사용하는 시멘트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바다를 건너온 灰(회)라고 해서 洋灰(양회)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灰色(회색)은 바로 洋灰(양회)의 색깔을 말한다. 영어에 “은근하게 반

짜거리는”을 뜻하는 고대영어는 gher에 어원을 두고 있다.

검정색의 어원은 “검다”라는 색채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가마솥 밑 언저리에 엉키는 “검디영”에서 유래되었다. 이 말에서의 “검”에 어미 “-다”가 결합된 것으로, 그을려서 생긴 검은색을 의미한다. 한자 黑(검을 흑)은 窓(굴뚝 창)과 炎(불꽃 염)이 합쳐서 된 글자이다. 즉, 불을 났을 때 나는 연기가 창문사이로 빠져 나가면서 그을려 검어지는 데서 유래되었다. 영어 “black”의 어원은 “어두운”을 뜻하는 고대영어 “blac”이다. 빛이 없는 어두운 상태가 곧 검은색이며, 이에 연유하여 “black”은 부정적인 상징을 많이 지니게 되었다.

② 무채색의 감성(상징성)

흰색은 무채색, 색의 한계성 그리고 분할되지 않은 빛의 총체로서 모든 색 가운데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상징학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색 중에서 가장 완벽한 색이다. 흰색은 빛의 모든 색을 합한 것으로 물리학적, 광학적 의미에서 단순한색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흰색은 빛의 색으로는 색이 아니다. 흰색은 빛을 표현하여 반사하기 때문에 흰색은 물체의 밝고 가벼운 느낌을 준다. 흰색은 젊고 발랄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색이고 모던하며 단순하다. 산업혁명 이후 대부분의 주방 가전제품에 흰색이 사용되었고 현대 산업사회나 과학을 상징하는 전자제품에도 흰색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흰색의 단순한 색채 특성은 미니멀리즘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즉, 흰색은 유행을 따르지 않고 모던한 색이므로 모든 장식과 색채에서 해방된 미학을 지향하는 기술디자인의 미니멀 양식에 적합하다.

회색은 대표적인 이미지는 금속적, 은은한, 도회적이며 모던함, 미래적이며, 평범함과 은은함이다. 회색은 근본적으로 회상적인 고요한 이미지이다. 일상어에서 회색은 주로 숨길 수 있는, 조용하게 두는, 나이든 것과 같은 평범함의 의미로 쓰인다. 회색은 다 타버린 재의 색이며, 본래의 빛깔이 없어지거나 윤기가 없어져 바래고 그늘진 은은한 이미지이다. 심리적으로 회색과 가장 대립되는 반대색은 노랑과 주황이며 삶의 즐거움을 나타내는 색이다. 회색은 흰색과 검정색 사이에 존재하는 색으로, 순수한 검정색과 흰색 사이에는 수없이 많은 명도의 회색이 연속적인 단계를 형성하고 있다. 회색은 힘이 없는 색, 고귀한 흰색이 더럽혀진 색, 강력한 검정이 약화된 색으로 모호하고 특성이 없는 색이기도 하다. 밝은 회색은 조용하고 약한 이미지를 주며, 부드러운 느낌을 전달해주므로 평온하게 느껴지는 색이기도 하다. 회색은 기계문명을 나타내는 금속의 대표적인 색이다. 또한 산업혁명에 의한 산업화, 도시화가 일어나면서 회색 콘크리트가 현대 기능주의 건축의 주재료로 사용되어 회색은 도시의 색이 되었다. 이 같은 회색은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농업사회와 구별되는 색으로 인지되며, 회색빛은 도회적인 감성과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모던하고 세련된 색으로 여겨진다.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는 주로 은회색의 필을 사용함으로써 더욱 부각된다. 제품에 화려한 외관을 부여하고 영롱하게 반사되는 회색 필의 빛은 초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표현한다.

검정의 대표적 이미지는 죽음, 고독이다. 또한 엄숙하고 엄격하며 검정은 다른 어떠한 색보다 모던하다. 검정은 장식을 절제하고 최소한의 색을

사용하는 기능주의와 관련된 모던한 이미지를 갖는다. 어두운 모태의 색이며 검고도 특별한 생명력이 있는 대지의 색이다. 가장 어두운 색으로 이론적으로 모든 빛을 흡수하는 색이며 흰색의 밝은 이미지와 대조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다. 검정은 어두워서 무게감 있는 엄숙한 이미지를 지니며 특히 심리적으로 남성다운 위엄이 있는 효과를 준다. 또한 엄숙하고 엄격한 이미지는 신중한 종교적인 색이며, 세속이 미치지 않는 도가적인 이미지의 색으로 연상되기도 한다. 또한 텔레비전, 오디오, 카메라, 등 가장 현대적으로 보여야 할 제품들에 검정을 사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전면으로 드러나게 한다. 고독하고 반항적이다. 검정은 고독함과 우울함의 색이며 모든 긍정적인 발전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을 암시하는 색이다.

(2) 인물의 형

미술사에 있어서 가장 먼저 표현된 소재도 인물이고 현재까지도 중요하게 다루어져 오는 소재 역시 인물이다.

작품 속 인물들은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을 소재로 하고 그들의 동작도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을 담았다. 일상적이지만 주변에서 흔히 마주치고 어쩌면 너무 일상적이어서 관심 있게 보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모습들이다. 인물들의 형태는 온전한 형태를 이룬 것과 잘려 일부분만 그려진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머리부터 다리까지 모두 그린 작품 '외출'[그림4]의 남자, 여자, 임신한 여자 그리고 유모차 속 아이 이미지는 194 × 259cm으로 200호에 화면 꼭 차게 인물들을 넣어 실제사람들 보다 1.5배 크기로 거대함 앞에 위축감이 든다. 혼한 풍경이며 겉으로 보기엔 온전하고 행복한 가족 형태의 인물 내면에 현대사회의 인간 소외, 인간성 상실, 공허함 등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자 했다. 작품 속 인물은

사회 안에서 인간으로 현실을 접하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외부로부터 요구 되는 인간과 본인 가치관의 내면적 충돌과 갈등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인물에 대해 외형적 형태가 아니라 그 내면의 심리를 고찰해 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2) 면 분할

면은 회화의 구성요소이다. 회화에서는 이차원적인 입체나 깊이가 표현되므로 그려진 면은 양감이나 공간의 깊이를 암시한다.¹²⁾

면은 형을 만드는 형상요소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기본현상 중 하나인데 본인은 형태의 재현보다는 명암법에 의해 밝음과 어두움으로 나누며 음영을 단순화시켰다. 명암법을 이용하여 밝음, 어두움, 회색톤 2단계,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 전체적인 실루엣과 큰 덩어리로 표현했다.

면을 단순히 윤곽으로만 파악하게 된다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면을 불특정 어떤 중심점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점점 넓혀져서 한계를 스스로 설정하지 않는 사물로 받아들일 때 그 본질을 보여주며 주로 선에 의해 주위의 공간에서 독립된 존재로 구획되기 때문에 선의 성격에 의하여 면의 성격도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면은 색이나 구조의 차이를 갖지 않는 공허한 상태이며 엄밀하게 평면인 상태로 있을 때 가장 순수하게 된다.

이처럼 순수한 상태로의 표현을 위해 명암법에 의해 평면인 4단계로 표현했으며 이렇게 하면 작품에 인물들의 표정이나 세밀한 동작을 읽을 수 없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된다.

12) 「월간 미술 세계용어사전」 1989. 서울:중앙일보사, p.288.

3) 일상 공간

공간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이며, 인간은 공간 속에서 살아간다.

공간은 인간의 존재 상태를 반영하며 인간이 놓여지는 배경으로서 존재하며 주변 상황 전체를 나타내게 된다.

예를 들어 몽크(Edvard Munch)의 <사춘기>[도판1]의 배경은 침대와 벽에 걸쳐진 음산한 그림자에 의해 불안하고 억압적인 분위기를 이루고 있다. 이 배경은 주변 상황과 인생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다. 소녀는 직관적으로 그녀 앞에 펼쳐질 고통과 혼란을 내다보고 있으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¹³⁾

뒤상(Marcel Duchamp)의 <샘>[[도판2] “일상에서 새로운 미”¹⁴⁾는 기성품이 가지고 있는 심미적인 미를 발견한 것인데 예술과 생활을 구분하지 않고 선택된 오브제는 일상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기호로서 제시된 것이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대중문화의 집단 의식 속에 참여하며 일상적 현실을 작품에 도입하여 예술과 일상적 삶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줬다.

라우젠버그(Robert Rausenberg)는 ‘그린다’는 것은 “예술과 삶에 모두 관계 된다”¹⁵⁾고 언급하고 예술과 삶의 연결을 시도하였으며 리처드 해밀턴(Richard Hamilton)의 작품 <오늘 우리 가정을 색다르고 멋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도판3]에서 이러한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산업화로 인해 많은 가정에 보급되어진 전자 제품들과 일상적인 물건들은 텔레비전, 녹음기, 청소기 등이 소재로 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뒤상은 근대적인 예술과 사회에 회의를 느끼고 반대하는 입장에

13) 데이비드 파이퍼 1995 미술사의 이해 시공사, p.98.

14) 전병관 1987 현대 미술의 동향 미진사, p.228.

15) 전병관 1987 현대 미술의 동향 미진사, p.243.

서 예술이라는 것을 새롭게 정의하기 위한 수단으로 레디메이드(ready-made)를 사용했고, 팝 작가들은 추상미술에 반대하여 일상의 사물에 관심을 가지고 활용한 것이다.

일상의 삶의 의미가 작품에 반영된 것은 미국 풍경화파 (America Scene Painting)에서 찾을 수 있다. 에드워드 호퍼(Eward Hopper)는 <밤을 지새는 사람들>[도판4]에서 도시의 권태롭고 황폐하며, 도시 속에서 갇힌 인간의 소외와 우울, 고독과 공허를 지닌 것으로 표현했다.

이처럼 호퍼는 그림자와 압도적인 건물 아래 텅 빈 거리와 밀폐된 실내를 조용한 빛과 사물 그리고 인물이 부동적 구도로 놓으며, 현대사회의 거대한 산업화와 풍부한 물질, 도시 인간의 무기력한 소외를 극대화하고 방황과 고독을 표현했다.

따라서 호퍼에게 있어서 도시라는 공간은 단순한 도시 풍경이 아니라 그 시대의 소외된 인간의 존재 방식을 말해주는 배경이며 주관적인 관점으로 재해석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 속에 나타나는 소재들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외부 세계와 분리가 아닌 작업 활동에 내면화시킴으로서 주변 공간과의 연결을 시도하여 일상 공간에서의 이미지에서 미적요소를 찾아내게 되었다. 일상 공간에서 일상이라 함은 매일 주어진 삶으로서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삶의 양식이라 할 수 있다.

루이즈 부르주아¹⁶⁾는 보호와 동시에 억압의 상징으로서의 "집"의 개념을

16) 루이즈 부르주아는 1911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파리 남쪽 비에브르 근처의 앙토니에서 성장했다. 1938년 미국인 미술사학자 로버트 골드워터(Robert Goldwater)와 결혼해 미국 뉴욕으로 이주하였다. 부르주아의 작품은 대립적인 여러 양식들이 중첩, 확산되며 과거의 모티프들이 새 작품의 맥락에 계속 번안 흡수된다는 점이다. 그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관계란 신체와 성적인 모티프 사이의 관계, 가족간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며, 이를 통한 삶의 기억에 의존한다. 어렸을 때 경험한 아버지와 가정 교사와의 불륜과 그로 인한 적개심, 어머니에 대한 연민, 그리고 이러한 관계

계속 전개시키면서 어린 시절의 공간을 재현한다. 초기의 <집=여자> 시리즈부터 시작된 ‘집의 공간’이라는 테마는 종합적으로 완결된다.

집은 싱글이나 기혼 남성들에게 잠을 자고 나오는 휴식을 위한 단순한 건물로 생각한다. 하지만 결혼 한 여성에게 집은 휴식, 그 이상의 안정감의 근원이자 행복감을 주는 곳, 내 가족의 보호막이다. 자신의 주된 생활 공간 이지만 그 공간마저 완전한 자신만의 공간이 아닌, 가족을 위하거나 가족과 함께 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자신을 보여 주기 위해 꾸미고 장식하는 공간이다.

이처럼 본인에게 집은 편안한 안식처임과 동시에 갈등의 장소를 의미하고 현실인 가정을 벗어나 새로운 세계이자 공간으로의 이동으로 ‘외출’을 선택했다. 작품 ‘외출’시리즈는 실내 공간과 실외 공간으로 나뉜다. 그 공간은 공원이나 거리 등 구체적인 공간과 추상적이지만 밖이라는 이미지만 준 가상의 공간이 있다.

공간은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각각의 위치, 장소이며 존재 방식이다. 자기가 놓여 있는 위치와 장소에 대해서 각각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 관계는 결코 그저 외면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우리들의 내면 깊숙이 침투해 있다. 시대적 현실에 접근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현실의 이야기를 통하여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속의 삶을 조명한다.

를 통해 형성된 남성과 여성의 갈등과 인간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그의 작품에 담겨 있다. 주요 작품에는 《한 존재와 타자 One and Others》(1955), 《큐물 I Cumul I》(1969), 《눈 Eyes》(1982), 《출구 없음 No Exit》(1989), 《셀 Cell》시리즈, 《마망 Maman》시리즈 등이 있다.

3. 작품 분석

[작품1]

외출 시리즈 중 초창기 작품이다. 캔버스에 광목을 씌우고 그 위에 아크릴로 작업을 했으며 이미지는 맥클라렌이라는 유모차 회사의 광고 이미지를 차용했다.

화면에는 두 명의 인물이 있는데 오른쪽 엄마는 치마를 입고 실외 의자에 앉아 있으며, 왼쪽에는 유모차와 그 속에는 아이가 앉아있다. 주변 배경은 스케치 상태로 두고 엄마와 아이의 이미지는 명암법에 의해 밝음과 어두운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명암법에 의한 면 분할로 검정색만을 채색하여 인물들의 자세한 얼굴 표정을 읽을 수는 없지만 엄마는 허리를 숙여 아이에게 시선을 향하고 있고 아이는 화면 밖 관객을 응시하고 있다.

가정에서 요구되는 주부의 역할은 반복적이고, 단순한 가사노동일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을 위해 희생하고, 구성원간의 갈등 구조를 해소해야 하는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주부의 역할들은 일상으로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간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집안에서 주부로서의 책임이 감소된 실외, 밖의 공간에서 조차 아이와 정신적 분리시키지 못하는 엄마이자 여성의 책임과 불안한 심정을 검정색과 하얀색의 배경만을 이용하며 무겁게 표현했다.

[작품2]

아빠, 엄마, 어린 아이 둘 이렇게 4명의 식구들이 벤치에 앉아서 찍은 기념사진을 차용한 것이다. 인물들은 화면에 오른쪽 상단에 위치해 있으며 시선은 기념사진이므로 정면을 향하고 있다. 아빠는 왼쪽에 위치해 있으며 중앙에는 큰 아이와 오른쪽에는 엄마가 아이를 업고 있는데 업혀있는 아이는 엄마의 왼쪽, 가족 중에는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배경에 화려한 색 면은 차가운 색을 넣었다. 주로 파란색 계열, 초록과 청록 같은 계열로 눈과 얼음을 연상시키는 차가운 색을 사용해 냉정함과 차분함을 상징하고자 했다. 인물들의 형은 배경색, 회색, 검정색 3단계로 나누고 배경색을 제외한 회색과 검정색에 채색했다.

주부이자 엄마는 정해진 곳만 이동하는데 매일 가는 곳이 아닌 새로운 공간으로 가족과의 여행은 즐겁다. 가족들과 함께 있어 행복하지만 행복함 속에 공허함과 부족함이 내면 에 존재하고 있다. 엄마, 여성이기 이전에 현대인으로서 자신의 사회적 욕구를 채우고 싶은 한명의 인간이다.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일수록 가정보다는 직장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계속 되고, 현대여성들은 가정생활에 안주하기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회로 진출하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를 원한다.

[작품3]

장지에 금분과 아크릴로 배경을 칠하고 형상은 먹의 농담을 이용해 표현했다. 화면 오른쪽에는 겨울 코트를 입은 여성이 위치해있으며, 왼쪽에는 유모차가 있는데 스토키라는 백만 원이 훌쩍 넘는 고가의 명품 유모

차이다.

작품의 형상은 이 유모차 회사의 광고 이미지를 차용했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겨울코트를 입었으며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은 비싼 유모차를 가지고 걸어가고 있다.

멋지게 꾸민 모습과 값 비싼 유모차가 여성의 자신감과 가치를 대신해 줄 수는 없다. 여성의 주체성에 대한 물음을 화려한 금분의 배경위에 먹의 농담을 이용하여 무채색으로 표현했다.

여성에게 결혼이란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과 성역할을 습득해야 하는 곳이며 가정에서 주부에게 부여된 성역할은 경험을 통해 사회문화적인 규정에 의해 구축된다. 사회적 타자로 여성에 대한 시각을 찾아보려했다. 현대사회의 변화와 여성 역할의 확장과 변화, 여성의 주체성 확립과 자아 실현의 욕구는 여성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고 여성 역할의 변화와 사회상 변화시키고 있다.

[작품4]

한 가족이 공원을 산책하는 이미지다.

작품 속 남자, 임신한 여자 그리고 유모차 속 아이는 실제사람보다 1.5배의 큰 사이즈의 크기로 거대함 앞에 위축감과 긴장감이 든다.

화면 왼쪽에는 남자가 오른쪽에는 임신한 여자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유모차 속 아이가 위치해 있으며, 4명의 가족은 실외공간인 나무가 있는 공원에서 산책한다. 정면을 향해 걸으며 시선 역시 정면을 향해 있다. 걸음으로 보기엔 온전하고 행복한 가족의 형태지만, 인물들의 표정을 자세히 표현하지 않으며 회색과 검정색을 사용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포근

하고 따뜻하며 안식처의 느낌보다는 불안하고 우울한 모습을 담았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행복, 현대사회의 가족과 여성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 물어보고 있다.

한국이라는 가부장사회에서 보이는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구조는 가사노동이나 경제적 능력, 의사결정 과정 등에서 재생산되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문제는 가정을 벗어나 사회적으로 확장 될 수 있다.

한지에 마티에르¹⁷⁾를 주고 배경에 채색하고 배경색, 연회색, 진회색 4단계의 명암법으로 표현했다.

[작품5]

아기용품 중 아기띠 에르고에 광고 이미지를 차용했다. 여성이 아기띠를 메고 외출하는 모습은 일상생활 속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흔한 풍경이다. 힘차게 걸어가는 여성의 아기띠 속에는 아이가 있고 손에는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다. 멋진 사회생활을 꿈꾸며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가족과 아이를 완전히 분리시키지 못하고 함께 하고픈 본인의 심정을 아이와 함께 외출하는 일상을 통해 표현하였다.

본인은 작품을 통해서 자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가족, 여성에 대

17) 마티에르 (matière)는 수채화·동양화·유화는 각각 화면의 재질감이 달라 재질미를 회화적 효과로 선택할 수 있다. 화면의 마티에르는 패널·캔버스·종이·기타 재질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 유화는 기름물감의 성질상 두껍거나 얇게 칠할 수 있고, 터치를 살려서 체질감(體質感)을 갖게 하는 등 칠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짜임새로써 효과를 올릴 수 있다. 따라서 마티에르란 재질에 익숙해지고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의 귀결로 볼 수 있으며 화가가 호소하려는 의도가 미적으로 처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근대회화는 고전과 비교하여 훨씬 개성적으로 다양하며 표현과 기법이 마티에르를 의도하지 않고 제작될 수 없으므로 화가에게나 감상자에게 있어 마티에르는 중요한 뜻을 지닌다.

한 생각해보고 동시에 자신의 존재를 규명하려 했다.

유화작품으로 파스텔 톤의 화려한 배경에 명암법에 의해 검정색 부분만 채색해서 붓 터치가 자체에 마티에르를 주었고 자유롭고 역동적이다.

[작품6]

유모차를 끌고 있는 사람의 위에서 본 이미지이다. 사진 기법을 통해 평소에 보던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보았다. 인물의 얼굴 부분을 자르고 유모차를 끄는 손 부분에 중점을 두어 표현했다. 먼저 한지로 마티에르를 주고 그 위에 배경색과 검정색만으로 표현했다.

유모차를 끄는 사람은 대부분의 엄마이고 여성이다. 아기를 키우는 사람이 외출을 하기 위한 수단인 유모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유모차는 현실공간인 집안과 이상의 공간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이다.

가족은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의 혼재된 가치들의 난립 속에서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여성과 남성, 노부모세대와 젊은 부부세대들의 조화와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간다. 가족 내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은 다원화에 따른 각각 구성원들의 욕구가 모두 수용될 수 없어서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가족 욕구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가족 간의 개방된 대화나 타협을 위한 노력은 매우 부족하여 대립구조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그러한 갈등으로 인하여 현대의 가족은 편안한 안식처로서의 위상을 위협받고 있다.

[작품7]

인물들의 얼굴 표정을 알 수 없지만 사람의 동작만으로 경쾌하고 발랄한 느낌을 준다. 보기에는 행복한 사진이다. 하지만 사진 속에 옆모습의 큰아이와 유모차 속 아이의 나이를 대충만 계산하더라도 여성은 족히 10년 이상을 가정에서 보냈을 것이다. 가정과 아이는 상상 할 수 없는 행복감을 주지만 그 행복감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현대사회의 인간으로서의 욕구가 있다.

한지 마티에르를 강하게 주고 녹색에 화이트를 섞어서 배경에 채색하고 배경색, 연회색, 진회색, 검정색 4단계의 명암법으로 표현하였다.

[작품8]

의자에 앉아 있는 여자 일부분, 의자에 앉아 있는 아이, 그리고 유모차에 아이 일부가 있는 작품이다. 가운데 의자에 앉아 있는 아이를 제외하곤 온전한 이미지가 아닌 부분의 이미지지만 멋지게 차려입고 멋진 곳에 앉아 있는 핑크 톤의 배경 속 인물들이다. 밝은 색 핑크 톤의 배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족의 행복한 이미지이다. 긍정적인 이미지인 가족의 모습 속에 현대 여성의 갈등과 고민은 무채색으로 표현하였다.

한지를 이용 마티에르를 강하게 주고 빨강색에 화이트를 섞어서 배경에 채색하고 배경색, 연회색, 진회색, 검정색 등 4단계의 명암법으로 표현하였다.

현실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부의 일상을 통해 여성성을 파악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개인적인 문제이면서 동

시에 가정 전체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는 가부장 사회라는 한국의 특성 안에서 인식되고 있는 여성으로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작품9]

큰 유모차를 끌고 가는 두 명의 모습을 담았다. 두 명의 엄마는 마치 이야기를 나누며 같은 곳을 가는 모습이고, 두꺼운 겨울옷을 입었다.

두 명의 친구는 과거에 어떤 꿈을 꾸었을까? 과연 현재의 모습이 과거에 꿈꾸던 모습일까? 어떤 꿈은 꾸었던 엄마로서의 지금 현재의 삶의 모습은 같다.

한지를 이용 마티에르를 주고 그 위에 배경색, 연회색, 진회색, 검정색 4단계의 명암법으로 표현했다.

여성이 결혼을 하고 가족이라는 새로운 울타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기존의 정체성과 새롭게 부여되는 정체성과의 충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가정이라는 구조에서 발생하는 모습과 인간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인간과 인간이 만나면서 새롭게 형성되는 가족이라는 영역과 가정 내의 가족관계에서 드러나 성역할에 대한 표현으로 시작된 본인의 작업에서 여성의 정체성은 중요한 소재이자 주제이고, 계속 연구해야 할 문제이다.

[작품10]

캔버스 4개를 연결한 작품이다. 2008년 5월말부터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반대해 엄마들이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광화문 광장에 모여 촛불 시

위에 동참했다. 그 이후 ‘유모차 부대’ 라는 신조어가 나왔다. 작품 이미지는 유모차 부대 시위 사진을 차용 했으며, 유모차를 끄는 사람은 지우고 유모차 이미지만을 명암법에 의해 배경색, 연회색, 진회색, 검정색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1] 외출, 73×61cm, 광목에 아크릴, 2009.



[그림 2] 외출, 162×130cm, 캔버스에 아크릴, 2009.



[그림 3] 외출, 130×162cm, 장지에 아크릴 금분 먹, 2009.



[그림 4] 외출, 91×117cm, 캔버스에 유화, 2009.



[그림 5] 외출, 194×259cm, 캔버스에 한지 아크릴, 2009.



[그림 6] 외출, 117×91cm, 캔버스에 한지 아크릴, 2009.



[그림 7] 외출, 91×117cm, 캔버스에 한지 아크릴, 2009.



[그림 8] 외출, 117×91cm, 캔버스에 한지 아크릴, 2009.



[그림 9] 외출, 117×91cm, 캔버스에 한지 아크릴, 2009.



[그림 10] 외출, 218×91cm, 캔버스에 한지 아크릴, 2009.

Ⅲ. 결 론

현대사회는 과거에 비해 한층 더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정보사회이다. 이런 사회 속 인간은 외형적으로는 윤택해졌지만 본질적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었고, 인간 소외 현상으로 인해 내면적 가치는 상실되었다. 그리고 가정에서 여성은 가사에 종속되기 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사회에 진출하기를 원하게 되었다.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어느 하나 포기하지 못하며, 사회생활을 꿈꾸는 현대 사회의 여성으로서의 삶을 아이와 함께 외출하는 일상을 통해 표현했다.

본인의 작품 활동은 여성의 정체성과 인간 삶을 일상적인 모습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였다. 본인 자신 삶의 내면과 외면뿐 아니라 타인, 현실과의 소통을 밑바탕으로 삶에서 파생되어지는 여러 체험을 반영하여 표현함으로써 현대여성의 시대적 현실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즉,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 여성이자 한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발전과 성취에 대한 욕망 그리고 현대 사회의 여성으로서 겪는 내적 갈등 및 정신적 방황을 묘사하고, 일상에 가려져 있던 여성의 심리를 표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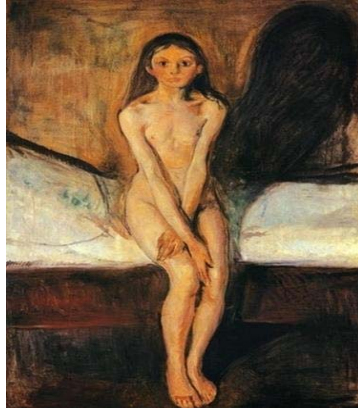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현실의 이야기를 통하여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속 삶을 조명하고 심리상황을 나타내며, 현실적 감정뿐 아니라 외부세계와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하며 개인적 삶과 사회 속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작품을 통하여 본인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자율적 자아의 확립하고자 했고, 예술을 통하여 사회의 통념을 극복 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작품을 이론적으로 정립하였고 좀 더 깊고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일상을 통해 사회를 반영하는 예술 작품으로 본인만의 독창적인 조형성을 획득해야하는 과제도 남았다. 또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작품을 진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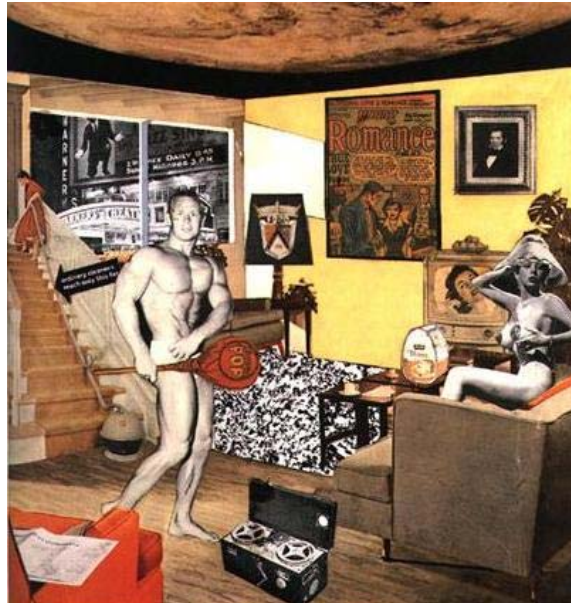
참고 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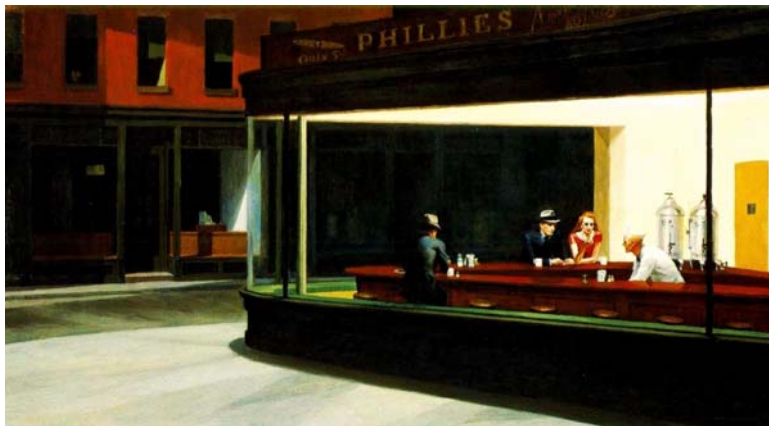
[도판1] Edvard Munch
<puberty> 1894
Oil on Canvas, 151.5x110cm,
Oslo National Gallery.



[도판 2] Marcel Duchamp
<Fountain> 1917/1964,
ready-made, 36x48x61cm,
Centre Pompidou.



[도판 3] Richard Hamilton
<just what is that makes today's
homes so different, so appealing?>
1956, collage, 24x25cm.



[도판 4] Edward Hopper <Nighthawks> 1942. Oil on
Canvas, 84.1x152.4cm,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참고 문헌

고영복 1991 「현대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현대사회론”」

김혜진 2008 「색채 감성 표현에 의한 스카프 디자인 :무채색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김효정 2005 「색채를 통한 일상적 심상적 표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학의 역사」 2007 서울대학교출판부. 미학세계간행회.

문경리 1990 「현대인의 일방적인 삶의 표현-현대사회의 인간성 상실을
중심으로」 이대여자대학교 대학원.

손정숙 「예술과 웰빙」 만남출판사.

유민정 2008 「일상 이미지에 의한 현대 회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어윈 에드만 「예술과 인간」 박용숙 (역), 문예출판사.

에른스트 피셔 1984 「예술이란 무엇인가」 한철의 (역), 돌베개.

「예술 사회학의 이론과전개」 양건열 (역), 미진사.

와타나베 마모루 1994 「예술학」 미학사.

「월간 미술 세계용어사전」 1989 서울 : 중앙일보사.

임춘식 1990 「현대사회의 인간소외」 서울 : 한남대학교 출판부.

조수현 2002 「현대가족의 갈등적 상황표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존듀이 1986 「예술론」 운형재 (역) 샤론.

하우저 「예술과 사회」 이진우 (역), 계명대학교출판부.

하우저 1983 「예술사의 철학」 황지우 (역), 서울:돌베개.

홍민영 2000 「일상이미지의 감성공간화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A. Vasquez 2003 「예술과 사회」 양건열 (옮) 이론과 실천.

Louis Flaccus 1926 「The sprit & substance of Art」 F.S crafts

ABSTRACT

**A Study on Expression about Women's Daily Life and
Identity in Modern Society
-Focusing on the Personal Artworks-**

So, Yun-Joo

Dept. Of Western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s what analyzed the contents and the modeling-based aspect on works, which were released through private exhibition in March of 2010 with the theme titled 'Outing' among the works, which were performed in 2009.

Women in the past are satisfied with home life while doing housekeeping and child-rearing. However, women in modern society got larger in an opportunity available for advancing to society. However, social recognition fails to keep pace yet with a change in women. It is the reality of having failed to escape greatly from the feminine image in the past.

At home, women need to be responsible for family affair and child-rearing while playing a role of wife, housewife, mother,

daughter, and daughter-in-law. In society, women need to produce the consistent performance while compromising and competing with co-workers. The person in question expressed women's this image in modern society through the commonly daily image such as taking a walk with family members or going out with wheeling a baby carriage. Characters in the works are the images that are faced often around and that can be just overlooked unless seeing carefully. Also, their movements and shapes were aimed to be revealed own internal and psychological conflicts in daily life with division and achromatic color by chiaroscuro, without being so seriously and being exaggerated.

As for women, a house is a place that is the origin of stability more than rest, and that gives a sense of happiness, and is the protective membrane of our family. Also, it is own residential space, but is the space of managing and decorating in order to aim at family, to be together with family, or to show oneself to other person, not the space perfectly peculiar to oneself even in the space. 'Outing' from a house, where is a place of happiness and resting, and simultaneously a place of conflict, is very important behavior.

It is one process in order to confirm an individual desire and a social role as a woman in modern society, and to find and re-discover the subjectivity as a human being, further the identity as a woman. The activity of works leads to having significance of self-healing as well as re-confirming an individual's internal world.